

-네요

감탄 — 지금 막 알게 된 사실

정보를 지금 이 순간 새로 알게 된 것으로 표시합니다. 말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깨달은 느낌을 어미 하나로 나타냅니다.

■ 결합 방법

상황	형태	예
모든 동사와 형용사	-네요	좋다 → 좋네요
ㄹ로 끝남	ㄹ 탈락	만들다 → 만드네요
과거	-았/었네요	가다 → 갔네요
이다	-(이)네요	학생이네요
반말	-네	종네
쓰지 않는 경우	이미 아는 사실, 계획	내일 비가 오네요 (×)

■ 언제 쓰나요

-네요는 어간에 바로 붙습니다. 단 하나의 예외로, ㄹ로 끝나는 어간은 ㄹ이 탈락하여 만들다는 만드네요.가 됩니다. 과거 등 다른 시제는 앞에 붙입니다: 갔네요, 좋았네요.

핵심 의미는 ‘발견’ 그 자체입니다. 날씨가 좋네요는 방금 밖을 보고 알아차렸다는 뜻입니다. 날씨가 좋ాయ라고 하면 이미 알던 사실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됩니다.

즉시성에 기대는 표현이므로 계획이나 예측과는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. 원래부터 알던 일이나 내일 날씨에는 쓰지 마십시오. 또 감탄의 느낌이 담겨 있어 칭찬할 때 자연스럽게 씁니다: 한국어를 잘하시네요.

■ 예문

- 1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.
- 2 한국어를 잘하시네요.
- 3 벌써 다 왔네요.
- 4 생각보다 비싸네요.
- 5 집이 머네요.
- 6 어제 비가 왔네요.

■ 비교

-군요
둘 다 깨달음을 나타냅니다. -네요는 무언가를 알아차렸을 때 바로 소리 내어 하는 말이고, -군요는 조금 따져 보고 알아낸 듯한 느낌이며 글에서 더 많이 씁니다.
비가 오네요. (창밖을 보고) / 비가 오는군요. (그래서 길이 젖어 있었구나)

-지요?
정보 측면에서 서로 반대입니다. -네요는 ‘나에게 새로운 정보’, -지요?는 ‘우리 둘 다 이미 아는 정보’를 나타냅니다.
날씨가 좋네요. (방금 알아차렸다) / 날씨가 좋지요? (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죠?)

-아요/어요
기본 어미는 사실을 서술하고, -네요는 반응을 나타냅니다. 한국어 화자라면 -네요를 쓸 자리에 기본형을 쓰면 틀리지는 않지만 맛있게 들립니다.
사람이 많아요. (사람이 많다) / 사람이 많네요. (와, 사람이 많다)

■ 주의

- ✗ 음식을 잘 만들네요.
○ **음식을 잘 만드네요.**
ㄹ로 끝나는 어간은 -(으)세요, -ㅂ니다 앞에서처럼 -네요 앞에서도 ㄹ이 탈락합니다.
- ✗ 내일 비가 오네요.
○ **내일 비가 오겠네요.**
-네요는 지금 알아차린 것을 전합니다. 내일 일에는 -겠-을 넣어 직접 관찰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한 추측으로 표현하십시오.
- ✗ 제 이름은 마이클이네요.
○ **제 이름은 마이클이에요.**
자기 이름을 새로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. -네요는 말하는 순간 새로 알게 된 정보에만 씁십시오.